

MD 무기체계 (이지스 구축함, 개량형 패트리엇)의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미국의 MD(미사일 방어망) 구축, 왜 문제인가?

·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 야욕

-상대국의 보복공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국만이 선제 핵공격 능력을 갖겠다는 패권적 발상.

· 세계적 차원의 무한 군비경쟁

-러시아, 중국, 유럽 등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화하고 MD 구축에 나섬으로써 세계적으로 무한 군비경쟁 초래되고 자원이 낭비됨.

· 신냉전체제 도래

-미국의 MD 구축으로 세계적 차원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면 신냉전체제가 도래될 가능성이 큼.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

-미국의 MD 구축은 북한 등의 미사일을 빌미로 삼고 있으며, 중국에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D는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장애로 됨.

KDX-III, PAC-III 도입, 왜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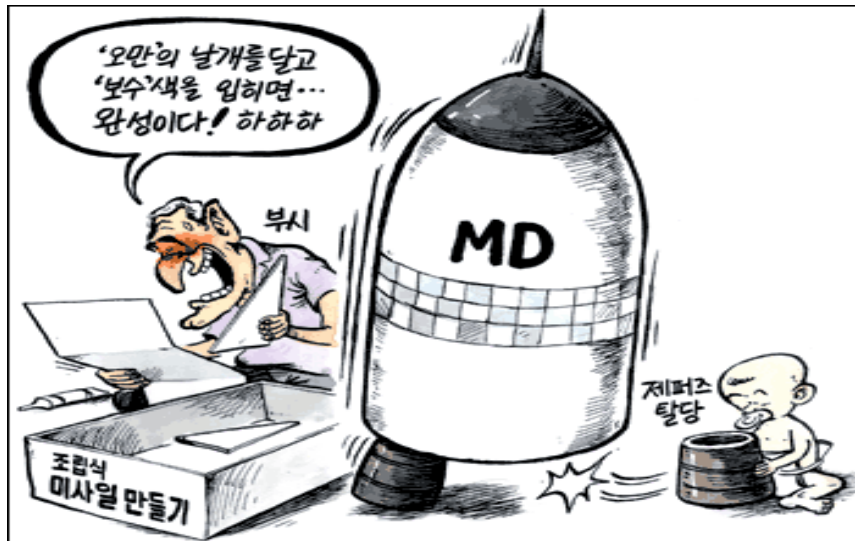
· 이지스 구축함(KDX-III) 도입의 문제점

- 미국의 MD 체제 참여
- 동북아 군비경쟁 초래
- 약 3조 원의 국민혈세 낭비
- 위성, 레이더, 탄도미사일 데이터 베이스 등 인프라 미비로 한국군 독자 운용 불가능

· 개량형 패트리엇(PAC-III) 도입의 문제점

- 미국의 MD 체제 참여
- 동북아 군비경쟁 초래
- 약 2조 원의 국민혈세 낭비
- 한반도 지형상 시간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려워 효용성이 낮으며, 최근 요격 시험에 실패하는 등 성능도 검증되지 않음

MD란 무엇이며, 한국의 MD 참여 왜 문제인가?



2001년 5월 26일 경향신문 만평

MD란 무엇인가?

MD란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 등과 핵 강대국이나 북한, 이라크, 이란 등 소위 '불량국가'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및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망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국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탐지, 요격시킨다는 것입니다.

50년대에 등장한 MD는 레이건 정권의 SDI(전략방어구상, '별들의 전쟁'), 부시 정권의 GPALS(제한 공격에 대한 전지구적 방어)을 거쳐 클린턴 정권의 NMD·TMD, 부시 정권의 MD로 바뀌어 왔습니다.

부시 정권은 '탄도미사일방어기구'를 '미사일방어국'으로 격상시키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하여 MD 개발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9·11 테러 이후에도 오히려 MD 구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MD 구축을 위해서 일본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MD 참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1. 한국 정부의 MD에 대한 입장

불참에서 모호성으로 선화

김대중 정권은 집권 초기에는 MD 불참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 군사적 관계와 천문학적 액수가 소요되는 재정적 측면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조건상 MD 자체가 불필요했기 때문입니다.

99년 3월 5일 당시 차영구 국방부 대변인은 "한반도 지형상 MD는 군사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며, 한국은 MD 체제를 구축할 재정적 능력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2월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조약'의 보전·강화를 지지하는 한러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 부시 정권의 압력을 받고 미국의 MD 추진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MD 참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이 MD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근거

미국, 한국에 MD 무기 배치

부시 정권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이지함 2척을 2003년까지 동해 공해상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까지 성능이 향상된 사정거리 70Km 안팎의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오산 등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부시 정권은 상대국 미사일의 발사를 탐지, 추적, 식별할 X-밴드 레이더를 한국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부시 정권은 한국 정부나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MD 무기체계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MD 무기 도입

한편 한국 정부는 MD 참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이 이지스 구축함이나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 등 MD 관련 무기체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지스 방공체계와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의 도입 계약을 5월 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한 미 7공군 산하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MD 기구 설치

미 공군 기관지 2001년 가을호에 따르면 한국군 영관급이 참여하는 '연합·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가 창설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구는 주한 미 7공군에 배치, 운영되고 있으며, 한미가 합동으로 탄도미사일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한국에서의 MD 구축과 한국의 MD 참여가 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3. MD 구축의 문제점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 야욕

MD는 말이 미사일 방어망이지 실제로는 미국만이 선제 핵공격 능력을 갖겠다는 패권적 발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은 수의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미국이 상대국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갖게 될 때 상대국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대국에게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망은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등 핵미사일 보유국 간의 '공포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미국이 세계 유일의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MD 구축은 현 부시 정권 하에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군사적 보장책으로, 냉전 해체 이후 위기에 빠진 미국 군수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더욱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적 차원의 군비경쟁과 자원낭비 초래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 등의 국가들도 이에 맞서 핵 전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체로 미사일 방어망구축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도 재무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뿐 아니라 핵무장으로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MD 구축은 전세계적으로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킵니다.

한편 MD 구축에는 천문학적인 비용

이 소요됩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그 비용이 약 600억 달러로 추산되었으나 부시 행정부에서는 무려 24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MD 구축은 빈곤 퇴치 등 인류 복지 증진에 쓰여야 할 자원을 군비경쟁에 낭비하게 됩니다.

신냉전체제 도래

미국의 MD 구축으로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위협받고 있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상당 부분 과거 관계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공공화될 경우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냉전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역행

미국의 MD 구축으로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신냉전체제가 형성되면 한반도 평화는 더욱 위협을 받고 우리 민족의 통일은 한층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6·15 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남북 화해와 통일의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2001년 10월 13일 MD 반대 국제행동의 날 집회

KDX-III, PAC-III란? 왜 도입해서는 안 되는가?

대형 구축함(KDX-III) 사업이란?

대형 구축함 사업이란 2012년까지 약 3조 원의 예산을 들여 7000톤 급 규모 이지스급 구축함 3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선체는 국내에서 건조하며, 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축함에 장착할 전투체계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이지스 체계나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아파르 체계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들 체계는 350~450Km 이내의 목표물 200여 개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으며, 24개의 항공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체계입니다.

현재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뿐입니다.



한국의 MD 참여 의혹

국방부의 이지스 구축함 도입은 2003년까지 동해 공해 상에 이지스함 2척을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계획과 맞물려 한국이 점차 미국 주도의 MD 구축에 깊숙히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MD에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하는 것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져오고 한반도 평화 실현과 우리 민족의 통일에 역행하게 될 뿐입니다.

한반도 군비경쟁 초래

남한의 해군 전력은 북한의 해군 전력보다 질적 우위에 있다는 것은 지난 99년의 연평 해전에서도 여실히 입증된 바 있습니다.

비록 숫적으로는 우세하다고 하나 경구축함과 소형 전투함이 주력인 북한의 해군 전력은 남한 해군에 비해 열세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러시아도 보유하지 못한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하는 것은 남북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킬 뿐입니다.

한국군 독자적 운용 불가

우리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을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최첨단 이지스 방공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성, 레이더, 전투지휘통제통신본부 탄도미사일 데이터 베이스 등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에 의존하여 운용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군의 주한미군에 대한 예측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3조 원의 혈세 낭비

국방부의 이지스 구축함 사업은 무려 3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지스 구축함 도입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부작용만 낳게 될 뿐 그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지스 구축함 사업에 3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세금을 들이는 것은 국민혈세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지스 구축함 사업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이란?

차기 유도무기 사업이란 약 2조 원의 예산을 들여 2010년까지 48기의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PAC-III)을 도입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1982년에 최초로 배치되어 1990년 걸프전에서 실전 운용되었으나 20% 미만의 낮은 격추율로 권위가 실추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PAC-III는 미국 레이시온사가 제작한 것으로, 항공기나 크루즈 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MD 무기체계의 하나이나 성능이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한국의 MD 참여 의혹

국방부의 PAC-III 도입 역시 한국이 점차 미국 주도의 MD 구축에 깊숙히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PAC-III는 유일하게 개발이 완료된 MD 무기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과 같이 충돌식 요격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소프트웨어를 향상시켜 다른 MD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였습니다.

이렇듯 PAC-III는 MD의 종말 단계의 요격용 무기로, 한국의 MD 참여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군비경쟁 초래

PAC-III와 같은 MD 무기를 배치하고, 한국이 MD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중국, 러시아 등 MD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1차적인 공격 표적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이 MD를 강행하면 다탄두 미사일과 같은 공격용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PAC-III와 같은 MD 무기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한층 격화시킬 것입니다.

요격 실험도 실패한 쓸모 없는 무기

PAC-III는 올 2월에 실시된 요격 실험에서 크루즈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라크 전에서도 PAC-II는 격추율이 20%를 밑돌아 그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의 단, 중거리 미사일은 시간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며, 설 요격한다고 해도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전장에서는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합니다.

따라서 PAC-III는 도입한다고 해도 효용성이 거의 없는 무기입니다.

2조 원의 혈세 낭비

PAC-III 도입에도 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검증되지도 않고 효용성도 거의 없는 PAC-III의 도입에 2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의 대형 무기도입 사업은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이나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처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PAC-III 도입 사업을 비롯하여 타당성 없는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즐거이는 국방부의 대형 무기 도입 사업에 나라 살림 거덜난다!

국방부의 주요 대형 무기도입 사업

사업명	예산 액수
공격용 헬기	2조 1천 억 원
차기 전투기	5조 8천 억 원
대형 구축함	2조 9600억 원
차기 유도무기	1조 9635억 원
조기경보기	1조 8천 억 원
총 액	14조 6230억 원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당면 주요 예산 수요

사업명	예산 액수
건강재정 보험 적자	15조 원이면 지난 해 건강재정 적자 1조 8,353억 원의 8배
농가부채 탕감	15조 원이면 150만 농민 가구의 빚 절반을 탕감할 수 있다.
청년 실업 대책 마련	15조 원이면 20대 청년실업자 30만 명에 대해서 월 150만 원씩 3년 동안 지급할 수 있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 확충	15조 원이면 국민총 1인당 월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예산 3조 5천억 원의 4배
사교육비 경감	15조 원이면 22조 원의 교육예산을 거의 두 배 가까이 확충할 수 있다.

우리의 요구

- 한국의 MD 참여 결사 반대한다!
- 국민혈세 낭비하는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
- 한반도 군비경쟁 조장하는 대형 구축함 도입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불요불급한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국민복지 외면한 채 무기도입 사업 남발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허리 휘게 하는 국방부의 대형 무기도입 사업, 온 국민의 힘으로 저지시킵시다!

☎ 항의 전화와 항의 메일을 보냅니다

국방부 : 국방장관실 748-1111 획득실 748-5661
청와대 : 국방비서실 770-0030 민원실 770-0060 이메일 webmaster@cwd.go.kr

☎ 집회와 투쟁에 적극 참여합니다.

집회, 투쟁에 대한 문의 (자통협 : 712-8443)

☎ 후원 모금 : 국민은행 066-01-0309-975 예금주 : 고영대

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연락처 : 712-8443(자통협), 708-4983(평화네트워크)

